

# 아시아 산업위생 혁신을 위한 교류 (Connect for Innovative Change - The Asian Way)

## 제7회 ANOH 콘퍼런스 현장중계

글·사진 김준호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안전컨설팅국 선임과장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ANOH<sup>1)</sup>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MIHA의 주최로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산업위생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1) ANOH: Asian Network of Occupational Hygiene (아시아산업위생네트워크)



**1일 차**  
10월 21일 (월요일)



MIHA(말레이시아 산업위생학회) 회장의 환영사와 ILO(국제노동기구)의 유카 우지타 박사(Dr. Yuka Ujita)의 기초연설(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의 실현)로 콘퍼런스가 시작됐다. 이어진 전체 회의(Plenary session)에서는 3명의 연사가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산업안전보건부(DOSH)의 마자하르 라흐만 박사(Dr. Majahar Rahman)가 ‘말레이시아 산업위생 표준 향상’에 대해 강연했고, 국제산업위생협회(IOHA)의 사만다 코넬(Samantha Connell) 회장은 ‘미래의 산업위생사 역할’에서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ANOH의 필립 힙스(Philip Hibbs) 회장은 '아시아의 산업위생 역량 확장'이라는 주제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산업위생 전문가의 발전방향과 성과를 소개했다.

오후에는 두 개의 세션이 열렸는데, 세션별로 세 개의 분야가 동시에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변화하는 산업위생 트렌드와 도전과제', '화학적 건강 위험 평가: 방법론 및 과제', '작업장 위험 완화: 열 및 소음 위험 평가와 관리'를 주제로 각국 산업위생의 활동 성과와 결과물이 공유됐다.

세션 2에서는 '심리사회적 위험 및 정신적 웰빙', '화학적 건강 위험 완화: 작업장에서 밀폐 공간까지', '산업위생 탁월성: 역량과 인식 강화'를 주제로 다뤘다. 각국 전문가들은 정신적 관리에 대한 부분, 화학물질 및 밀폐공간, 산업위생활동을 통한 직업성질환 예방



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저녁에는 '문화의 다리: 글로벌 연대의 밤'이라는 주제로 갈라 디너가 진행됐다. 말레이시아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각국의 산업위생 이슈 및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일 차

10월 22일 (화요일)



2일 차 전체 회의는 1일 차와 동일하게 3명의 연사가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사회보장기구(SOCSO)의 에드린 나즈리 압둘 라시브 박사(Dr. Edrin Nazri Abdul Rasib)는 '직업병 증가 해결을 위한 비전 제로'를 주제로 말레이시아의 직업병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보건관리 계획과 추진성과 등을 이야기했다. 영국산업위생학회(BOHS)의 팜지트 가히르(Parmjit Gahir) 회장은 '영국의 화학 위험 관리'에 대해 단계별 세부 진행사항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ANOH 초대 회장을 지낸 한성대학교 박두용 교수는 '산업위생 품질과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아시아 산업위생 전문가들의 교류와 기술발전은 아시아의 표준을 수립할 것"이라며 "아시아의 산업위생 기술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차에 이어 세션 3에서는 '석면 관리', '산업위생의 기업 운영 통합', '디지털 시대에서의 노동자 건강보호'를 주제로, 아시아에서 산업위생활동에 대한 소개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노동자 건강보호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2일 오후 세션 4에서는 ‘아시아의 위험성 평가 접근법’, ‘작업장 건강 위험 평가: 화학, 생물학, 진동 등’, ‘노동자 건강의 미래: 디지털 솔루션과 혁신적 기술’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발표가 토론이 동시에 진행됐다. 위험성평가에서 아시아 산업의 특성과 보건관리를 위한 신기술 도입과 성과가 제시됐다.

특별 대화 세션은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아시아의 접근법’을 다뤘다. MIHA의 마리나 자이날 파리드(Marina Zainal Farid)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유카 우지타 박사(ILO), 사만다 코넬 회장(IOHA), 로팅 린 교수(Prof. Ro-Ting Lin, TOHA), 히로히코 나카하라(Hirohiko Nakahara, JSOH), 박정임 교수(KIHA)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각각 전문가들은 산업위생 전문가의 발전을 위하여 육성교육과 현장경험에 대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인 폐막식은 차기 개최지인 대만 타이베이에 대한 소개와 주최를 맡을 대만산업위생학회의 초대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

**ANOH(Asian Network of Occupational Hygiene)**

2014년 설립 이후 2016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첫 번째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아시아권 산업위생 전문가들이 컨퍼런스를 통해 학술 및 적용사례를 교류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산업위생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시아에서 산업위생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산업위생 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산업위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발맞춰 인력 양성 교육과 협업을 통한 발전을 이어 가고 있다.